

##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배경

### 이 교 덕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연초부터 방중설이 나돌았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권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2006년 1월에 이어 4년여만에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 완화와 후계체제 구축, 6자회담의 재개,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과 남북관계 경색 등이 현안이 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과 북·중관계 강화방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문제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지원 확보가 최우선 목표라고 할 때 의아스러운 것은 그가 왜 지금 방중을 결정했을까 하는 점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 소문은 올해초부터 흘러나왔고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방중시기가 3월말에서 4월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어긋났다.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 이유가 그의 건강 이상이나 신변 안전 문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중하기 전 그의 왕성한 국내활동으로 보아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이번 방중에서 그의 신변 안전 문제에 예전보다 더 특별히 신경쓴 흔적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방중은 일정이 전례없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의 방문 협의는 상당한 시간전에 끝났고 중국측은 언제든 문을 열어놓았으니 구체적인 방문일정은 북한측에서 결정하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각대로 화폐개혁이나 대북제재의 계속으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지원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일까? 이는 목적의 하나일 수 있지만 왜 그가 지금 방중했는가 하는 시기(timing)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 경제사정 개선이 주요인이라면 화폐개혁으로 혼란해진 2월쯤 더 일찍 방문할 수도 있었고 경제사정이 그의 이번 방중으로 급속히 나아질 성격의 것이 아니라 하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 늦게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5월초라는 지금의 방문을 김 위원장이 결심한 주요인은 역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상하이 엑스포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 데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두고 북한 관여설이 강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에게 북한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그 뜻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신 전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방중 결심의 주된 배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제사회의 이목을 천안함 사건에서 돌릴 수 있고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6자회담 재개 문제에서 김 위원장이 전격적인 6자회담 복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6자회담을 주선하고 북한 핵문제에서 중재국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과시해온 중국의 체면을 살려줘

‘빛’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천안함 사건 해결 이전의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우리나라 미국으로 인해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의 중단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이점도 생긴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핵심 의제인지는 북한에서 누가 배석하는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이 배석하는 경우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문제임을 간취할 수 있다.

이런 논거에서 정치적 고려가 우선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번 방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나 투자 확보라는 경제적 고려도 주요 배경이다.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최대 경제지원국이다. 김 위원장은 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그 핵심 주장에 동의하는 대가로 중국의 경제협력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매번 북한의 경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게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데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도 상당량의 무상원조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 위원장과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 동북3성 진흥계획과 북한의 경제회복을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외자유치로 발전한 중국 동북부의 최대 물류거점 도시이자 나진항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의 창리(創立)그룹이 있는 다롄을 방문하여 항만시설을 둘러본 것도 이를 시사한다.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에서 세인의 주목거리 하나는 그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예고하는 듯한 행보를 보일까 하는 점이었다. 이번 중국 개혁·개방의 산물인 다롄을 방문한 것도 그 예고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방중에서 김 위원장은 귀로에 베이징의 관문인 텐진을 시찰하여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의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고 ‘천지개벽’한 상하이나 중국 개방의 진원지인 남부지방을 둘러보아 북한의 개방에 기대를 갖게한 적도 있었다. 이번에는 추측되는 짧은 일정으로 미루어 다롄 방문 외에 개혁·개방과 관련한 동선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과거에 김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도시를 방문하여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더라도 그의 이런 행보가 북한의 과감한 개혁·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가치는 없다.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이후 그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되고 김정은의 이상화 작업이 북한내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꼬리를 물고 있어 이번 방중에서 그의 수행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후계자 내정을 인정받고 중국 지도부와 상견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가 수행했을 것이라고 짐쳐지기도 하지만 그의 수행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적으로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정치적 기반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 주민이 후계자의 존재를 모르는 가운데 먼저 서방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매사 ‘주체’와 ‘우리식’을 강조하는 북한이 차기 지도자의 결정에 외국의 눈치나 인정 여부를 의식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후계자로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공표된 이후인 1983년에야 방중한 바 있다.

